

월요광장



박석무
다산학자·우석대 석좌교수

세상은 날마다 막된 세상으로 흘러가고 국민들의 삶은 갈수록 팍팍해지면서, 밝은 내일을 기약할 수 없이 어두운 그림자만 짙어가고 있다. 이런 때에는 다산 정약용 같은 현인(賢人)의 책을 열어보면서 그가 제시했던 요순시대의 구현을 위한 방책들에 마음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다산은 분명히 말했다. 육경사서(六經四書)의 경학(經學) 공부를 통해 자신의 인격을 제대로 수양하고, 일표이서(一表二書 :경세유표·목민심서·흠정선서)의 내용대로 정책을 세워 나라를 이끌어간다면 반드시 요순시대는 오게 된다고 하였다.

“옛날 무술년(戊戌 :1778) 겨울, 아버지께서 화순 현감으로 게실 때에 나와 중형(仲兄 :정약전)이 동림사에서 책을 읽는데 40일 만에 ‘맹자’ 한 질을 모두 읽었다. (형님은 ‘서경’을 읽었다)…얼음물로 세수하고 이를 닦으며 눈 내리는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으니 요순군민(堯舜君民)에 관한 내용이었다.”(중형묘지명·仲兄墓誌銘)

17세의 다산, 21세의 손암, 두 형제가 세상을 개혁하여 요순시대를 만들어보자는 담대한 토론을 밤새우며 했다는 내용이다. 17세의 소년 시절부터 다산이 요순

화순 동림사(東林寺)에서 익어간 다산의 꿈

시대의 임금, 요순시대의 국민들이 했던 것처럼 올바른 정치와 올바른 생각으로 요순 정치를 복원하자는 꿈을 품고 살았다는 명확한 증거이다. ‘맹자’와 ‘서경’이 바로 경서 중에서는 요순 정치 구현을 위한 방책이 가장 잘 제시된 책이다.

우리의 위대한 선조 중, 고려의 포은 정몽주, 조선의 정암 조광조, 율곡 이이 등 참 선비이자 참다운 유학자들은 바로 요순 정치를 복원하자고 일생을 노력했던 학자였으며, 마지막에 이르러 다산이 그런 모든 학자들의 뜻을 종합하여 500여 권의 저서를 통해 요순 정치 구현의 자료를 제공하였다. 사묘의 자제로 고요한 절간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던 눈 내리던 밤, 그 형제는 온갖 이상사회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을 했었다. 썩고 병든 조선이라는 나라를 뽕뽕 개혁신하여 만인이 평등하게 살아가는 나라, 모두가 배고픔 없이 마음 편하게 살아가는 세상, 사회적 약자일수록 국가의 배려로 불편 없이 살아가는 세상, 봉당 정치를 멈추고 당쟁을 뛰어넘어 오직 공론만 주장하고 편론(偏論)은 행세할 수 없는 세상을 만들자던 형제의 꿈이 요순의 이상세계를 이룩하려던 아름다운 꿈이었다.

1836년 75세의 다산은 자신의 꿈을 이룩하지 못하고 눈을 감고 말았다. 나랏일을 하는 사람들, 다산의 그 간절한 외침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다가 마침내 나라를 망했고 우리 국민은 36년의 쓰라린 노예생활을 해야만 했다. 민족혼까지 말살하려던 그 악독한 제국주의 일본, 그들은 오늘까지도 우리를 무시하고 못된 일, 해서 안 될 일까지 감행하면서 우리 민족을 괴롭히고 있다. 다른 이유가 없다. 오직 다산의 그 아름답고 값진

꿈을 실천하는 일에 우리 누구도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탓이다.

이제라도 다시 다산의 꿈에 마음을 기울이자. 다산은 ‘맹자’에서 배운 방벌론(防伐論)을 이어받아 ‘탕론(湯論)’이라는 혁명적인 논리를 제시했다. 중국 고대의 탕 임금이나 무왕(武王)이 결투(결투)를 방벌하여 혁명을 성공했던 것처럼 잘못하는 임금은 언제라도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 쫓아내는 정치가 바로 요순시대의 정치라고 하였다. ‘서경’의 민본(民本) 사상을 근본으로 하여 ‘원목(原牧)’이라는 글을 통해,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주장하고 국민은 언제라도 권력을 교체할 권리가 있다는 명쾌한 주장을 하기도 했다. 이제 다산의 꿈을 아름답게만 여기고 있을 수 없다. 우리 국민들의 행동을 통해 다산의 꿈을 실현시켜야 한다. 다산의 꿈에 눈 감고 있다가 나라가 망했던 옛날을 생각해더라도, 지금 그대로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백성의 뜻을 거역하고 독단의 정치만 하고 있는 임금, 모두가 반대하는 일을 혼자만 옳다고 감행하는 그런 임금, 언제까지 보고만 있을 것인가. 200년 전에도 다산은 그런 임금을 반드시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런 민주공화국의 나라에서 그냥 두고만 볼 수 있겠는가.

전라도 땅 화순의 동림사에서 꾸었던 다산의 꿈, 비록 동림사는 폐사가 되어 빈터는 밭이 되어버렸지만, 그의 정신과 생각은 아직도 남아 있다. 다산은 그때의 일을 ‘동림사 독서기’라는 산문과 ‘동림사 독서’라는 시로 남겼다. 다산의 꿈을 실현하는 일에 우리 함께 손을 잡고 나가자.

수필의 향기



박용수
수필가·동산여고 교사

어머니를 모시고 나들이 나섰다. 부지런한 들판엔 개미처럼 풍성한 가을이 내려 앉았고, 배짱이처럼 느긋한 무등산은 이제 막 열게 색칠을 시작했다.

담양과 화순 경계를 오간다. 폐가 옆으로 새 주택이 들어섰고, 구불구불 길들도 여유롭다. 전망 좋다 싶은 곳은 여지없이 서구식 주택이 들어서 한껏 뽐을 내고, 주변으로 새로 들어선 음식점이나 커피숍들이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다. 그중 한곳을 택해 들어갔다.

국밥, 볶음밥, 추어탕을 찾는데 메뉴판엔 없다. 슬레이트 지붕이 없어지고 서구식 주택이 들어서 것처럼 메뉴판도 온통 서구적이다. 스파게티, 탕후루, 마라탕 등 낯선 이름들이 나와 어머니 입맛을 조롱하듯 바라본다.

시장이나 읍내에서나 먹던 식사를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외진 골짜기에서 할 줄은 몰랐다. 식사 중, 내 시선은 창밖 깊은 골짜기 건물에 박혔다. 아주 오래전 봤

세상 끝에 있는 집

던 건물이다. 그때는 분명 모델이었다. 그래, 은밀한 골짜기에 잘 어울리는 모델, 이름도 웅궁 모델이었다. 심산유곡에 웅궁을 작명한 이의 의도도 우스웠지만, 도대체 누가 이용할까 궁금해서 한참을 보았었다. 그리고 기회가 생기면 여기서 와야지 내심 헛된 꿈을 꾸었던 젊은 날 기억이 몽게몽게 떠올랐다.

그런데 간판이 달렸다. 모델도 커피숍도 아니었다. 녀석도 단풍처럼, 아니 추레해진 나처럼 어느새 다른 옷을 입고 있다.

요양원, 행복 요양원이었다. 묵묵히 되돌아오면서 뒷골이 당겼다. 퇴직이 눈앞이다. 당분간 월가. 두 번째 직장을 구해볼까, 귀향할까. 어쩌면 그 선택지에도 없는 공원이나 거리를 배회하거나 이곳저곳을 기웃거릴지 모른다.

말바우시장, 광주공원, 지하철 광장에서 서성거리는 수많은 우리들의 형님들, 그 속에 내가 끼여있을 것 같아 화들짝 놀라곤 했다. 평생 일만 하면서 꿈꾼 자유, 자기만의 삶을 선물 받은 이들이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함을 모를 리 없다. 그들도 청소년처럼 우왕좌왕 방황할 줄 몰랐을 거다. 두 번째 방향은 꿈과 패기는 물론 행복 요양원 이름처럼 행복도 없다. 요양원 문턱 앞에서의 배회는 고민 아닌 고민이다.

불과 몇 년 전, 술자리에서 요양원을 하면 쉽게 돈을 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노령화 현상을 재빨리

읽는 그들 말처럼 최근에 정말 요양원과 요양병원이 우후죽순처럼 생겼다. 스파게티나 새우버거처럼 날팔도 익숙해졌다. 그리고 산속에 있던 것들이 시외에서 시내로 그리고 도심으로 성큼성큼 들어왔다.

요양원, 제아무리 집 옆으로 다가왔다지만 편하지 않은 곳이다. 1940~50년대 태어나 흰겨운 시대를 살아온 이들이 마지막 쉬는 간이역이고, 승객은 다름 아닌 우리 부모들이지만 선뜻 끼리는 곳이다. 세상에서 가장 먼 곳, 세상 끝에 있는 집이다.

저 집이 꼭 바닷속 미역밭이면 좋겠다. 세상에서 가장 멀리 있지만 가장 푸른 곳이었으면 좋겠다. 하늘에서 가장 가까이 더욱 질푸른 집, 사방이 나무들이 온통 미역 줄기처럼 치렁치렁 늘어지고 파란 바람이 부는 곳, 상처 입은 동물들이 동물에서 몸을 추스르고, 물고기들이 이 해초에 몸을 비비며 낫듯이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견디며, 쉽지 않게 살았을 이들이 부디 평온하길 빈다.

마음과 달리 내 몸은 그곳을 향해 지금도 질주하고 있다. 거부할 수 없다는 결 알기에 스스로, 내 발로 가겠다고 주먹을 꼭 쥔다. 타고 얼마 남지 않은 촛불이 휩스치는 바람에 꺼지듯 고통 없이 소멸했으면 한다. 온 동네 떠나갈 듯 요양원까지 태어났을지라도 소멸의 길은 평온하고 조용히 배란다.

내 옆에 동승한 어머니는 지금 새근새근 주무시고 계신다. 요양원 앞이다.

社說

당무 복귀 이재명 대표...통합·민생 행보 기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여의도 국회에서 단식 농성을 하다 지난날 18일 건강 악화로 병원에 실려간지 35일 만이다. 이 대표는 23일 최고위원 회의의 주제를 시작으로 당무에 복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복귀후 어떤 행보를 보일지 초미의 관심이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당무 복귀후 첫 과제로 꼽혀 온 이른바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과 5인방' 징계 청원 여부다. 징계 청원에는 지도부 당면 요건인 5만 명 이상이 참여했는데 최고위원들은 당 윤리심판원 회부 결정을 미루며 이 대표의 복귀를 기다려 왔다. 비명(비이재명)계 송갑석 최고위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후임 지명직 최고위원에 누구를 임명할 지도 관심사다.

정가에선 이 대표가 징계 청원을 무기한 보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구속영장 기각과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 압승으로 리더십이 탄탄해진 상황에서 서반대파 징계가 당내 분란만 키울 수 있

기 때문이다. 정가의 전망대로 이 대표가 통합의 리더십을 보이기를 기대한다. '해당 행위'라며 징계를 요구하는 친명(친이재명)계의 요구가 있지만 내년 총선을 위해서라도 비명계를 끌어안는 통 큰 리더십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 문제로 통합 차원에서 풀어야 한다. 최근 지도부가 총청관·원외·여성인도 인사와 사실상 낙점하고 이 대표에게 추천하려다 비명계 반발에 재검토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중립 성향의 인사를 발탁해 계파 갈등 요인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대외적으로는 민생에 최우선 방점을 뒀어 한다. 고물가 고금리 고통을 등 '3고(高)'로 경제위기에 버금가는 상황이다. 특히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한 서민 경제는 막다른 길에 몰려 있다. 첫 최고위원회의 발원부터 서민 경제난 해결에 맞추고 필요하다면 현장 최고위원 회의와 민생 경쟁투어를 재개해 서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길 바란다.

의료 혁신의 본질은 지역·필수 의료 강화다

정부가 '지역 의료 인프라 붕괴' 위기에 대응해 지방 국립대를 중심으로 지역·필수 의료 강화하는 의료 혁신안을 발표하는 등 의료체계 개편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는 것 같아 기대가 크다.

정부가 잇따라 발표한 의료 혁신안은 의사 수를 늘려 필수 의료 분야 유입을 유도하고, 국립대병원 등 거점 기관을 필수 의료 중추로 삼아 지역 병·의원과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뀌 진료·연구·교육 등의 분야에서 균형적인 발전을 꾀하기로 했다. '쇼아과 오픈런'(문 여는 시간에 맞춰 대기)과 '응급실 뺑뺑이'로 대표되는 지역·필수 의료 붕괴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전략인데 이제라도 시행하겠다고 다짐이다.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현실을 따진다면 정부의 이번 대책은 늦은 감이 있다. 원정 진료를 위해 아픈 몸을 이끌고 새벽 KTX

를 타고 삼성병원 등 이른바 서울의 '빅5 병원'을 찾는 지방 환자들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게다가 전남은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고 하는 마당에도 의료 인력을 양성할 의과대학이 없는 유일한 지역으로 남아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런 이유가 아니라도 지역의 편향된 의료체계 실태는 정부 대책을 하라도 더 늦출 수가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오죽하면 대통령까지 나서 의료체계 대수술의 필요성을 거론하고, 지방 국립대 병원장들이 의대 정원을 지금 증원해도 늦었다고 한 목소리로 호소했겠는가.

이번 발표로 무너진 의료 서비스의 공급과 이용 체계를 바로 세우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인됐다. 이제 얼마나 신속하게 어떤 방법으로 시행할지가 관건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혁신안 성공을 위해서 의료 인프라 확충과 인재 양성이 필수인 만큼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세부안을 조율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나주선(羅州船)은 2004년 나주시 영산동 동구나무 인근 자갈밭에서 발견됐다. 고선박이 주로 해안과 섬 주변에서 발견되는 것과 달리 최초로 강에서 모습을 드러내 주목받았다. 발굴 장소에 따라 이름을 붙이는 관례에 따라 나주선으로 이름 지었다. 나주 영강동 주민 윤재술씨가 우연히 발견한 나무 조각은 고려 전기의 선박 부재인 좌현 선미 만곡부(船尾彎曲部·선체의 밑바닥판과 외판을 연결해 주는 'ㄱ'자형 부재)편과 외판(外板) 조각

적을 더 건조하였는데 그 중 대선은 10여 척으로 각각 사방이 16보요 그 위에 다락을 세웠고 거시가 거의 말(馬)을 달릴만 하였다. 태조는 군사 3000명을 거느리고 군량(軍糧)을 싣고 나주로 갔다"고 쓰여있다. 나주시는 초마선으로 선체를 복원해 '왕건호'라고 명명하고 영산강에 띄우기도 했다

나주선과 왕건

나주선은 전장 32~42m에 달하는 초대형급 고려 선박으로 추정됐다. 나주선은 길이가 29.97m, 너비 9.05m, 나 용도는 엇갈렸다. 조세미를 운반하던 조운선(漕運船)인 초마선(哨馬船)이라는 해석과 고려 태조 왕건이 나주를 공략할 당시 동원한 군선(軍船)이라는 견해가 맞았다. 초마선은 고려사(高麗史) 조운조(漕運條)에 등장한다. "석두창(石頭倉·현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던 조창)을 비롯한 제창(諸倉)에는 6척의 조운선 외에 곡물 1000석을 능히 싣는 초마선 1척이 배정돼 있었다"는 내용이다. 군선역시 고려사 태조조에 "태조는 군선 100여

바탕으로 군선이라는 데 방침을 짰었다. 흥 연구사는 나주선은 길이 29.97m, 너비 9.05m, 높이 4.37m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그는 "조운선은 나주선 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초마선과는 거리가 멀고 왕건의 나주 수군기지인 남포진에 소속된 군선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적잖은 논란을 예고하는 나주선의 정확한 용도는 언젠가 밝혀질 것이다. 분명한 점은 나주선이 1000년 전 찬란한 나주 영산강 역사와 교류를 증명하는 고려시대 선박이라는 사실이다. /윤영기 사회·체육담당 부국장 penfoot@

기고

마을에서 행복한 아이들 '놀다, 배우다, 함께 웃다'



박태순
광주여성가족재단
인구고용전략팀장

돌봄의 사전적 의미는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다'라는 뜻으로 타인의 양육, 성장 및 치유에 관심을 가지고 그의 신체적 육구 및 정서적 육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일이다. 아동의 경우 발달과정 중에 있다는 점에서 스스로를 돌보는 데 한계가 있어 이들에 대한 돌봄은 그들의 생존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

공동체란 지역성, 유대감, 상호작용, 공공성이란 구성 요인을 가지고 일정한 지역적 범위 내에 거주하고 살아가는 구성원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유대감을 형성하며 구성되는 조직적 형태로, 지역 전체의 공공성을 고려하는 집단활동을 의미한다.

아동돌봄과 공동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아동돌봄 공동체의 개념을 정의해보면, 아동돌봄 공동체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공유된 이해, 정제성, 소속감을 바탕으로 아동 돌봄을 위해 협력하고 연대하는 것으로, 지역 내 돌봄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이다. 즉, 마을 아동돌봄 공동체는 지역 내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 내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함께 나누는 것이며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돌봄 관련 문제를 논의하고 돌봄 관련

자원을 나누며, 지역 내 또 다른 돌봄 자조모임·단체·기관들과 연계망을 구축하고 연대를 강화하여 아동돌봄 친화적인 지역사회를 조성해나가는 활동이다.

특히 그동안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 일방적 공적 아동돌봄 정책이 갖는 한계로 인하여 돌봄 정책 대상의 편중화, 돌봄 시간대의 중복, 긴급 돌봄에 대한 신속한 대응 한계 등으로 다양한 돌봄 육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공적 아동돌봄 정책만으로는 다양한 아동돌봄 수요에 대응하는데 제한적이기 때문에 공적 아동돌봄 정책을 보완하기 위한 지역 기반의 아동돌봄 공동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지역마다 아동돌봄 문제 및 육구가 상이하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아동돌봄 공동체 운영을 통해 실질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마을중심 아동돌봄 공동체는 지역사회 내 아동의 돌봄 수요와 돌봄 육구를 기반으로 아동과 부모가 돌봄이 필요할 때 신속하게 돌봄을 제공하며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긴급 돌봄이 가능하다. 또한 마을중심 아동돌봄의 경우 큰 아동들이 작은 아동들을 돌봐주면서 아동은 단순히 돌봄의 수혜자가 아닌 참여자로서도 활동하게 되고, 돌봄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공적돌봄이 마비되었을 때에도 지역 내 마을공동체는 공적 돌봄체계를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들에게 간식과 식사를 제공하고 학습을 돕는 등 돌봄 및 교육 공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 및 자치구는 각 마을의 특성과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아동돌봄 공동체를 120곳 이상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담당 부서 및 운영 기관과 사업의 특성에 따라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광주시 및 교육청이 주도하는 마을교육공동체(온)마을학교 및 방과후 마을돌봄, 여성 진화도시 조성사업을 통한 여성 가족 진화마을 돌봄사업, 자치구 주민공모 사업인 마을돌봄 공동체 지원사업, 공동육아 나눔터를 기반으로 한 토탈이 공동육아 모음이 있다. 이러한 마을공동체의 사회적 가치는 돌봄의 직접 수혜자인 아동과 양육자에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언제든지 이웃의 따뜻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것 이외에도 돌봄을 제공하는 활동자들에게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역량 강화,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 교류, 다양한 재능 기부 등을 통해 자기 성장의 기회가 제공된다.

이제는 돌봄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아이들이 행복해야 부모도 행복할 수 있다. 더 오랜 시간, 한 공간에서 밤 늦은 시간까지 돌봄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아동 당사자 관점에서 최상의 이익이 될 수는 없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은 집 가까이에서 동네 친구들과 동네 이웃이 함께 돌보며 아동 당사자 중심의 놀이권과 참여권이 보장되고 돌봄의 대상, 시간, 내용이 경직되지 않는 함께 놀고 배우고 어울리는 공동체 돌봄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이에 지역사회와 공동체 및 지자체 모두에게 특이 될 수 있도록 마을 아동돌봄 공동체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 (구속 신청 배달 안배)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체육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80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